

LS 증권 주간 Global ESG News

주간 ESG 뉴스 2026.06.19~2026.06.26

구분	시장 동향
Energy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● 유럽 ESS '30년까지 성장 전망 (2026.06.23, Reuters) <p>유럽의 연간 배터리저장장치(ESS) 설치량은 '30년까지 가속화될 전망. 이에 EU 전체 배터리 저장 용량은 '25년 77GWh → 470GWh로 증가할 전망. 그럼에도 기후·안보 목표 달성에 필요한 600GWh 정책 목표에는 미달될 것이라 우려 존재</p>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● 미국 태양광, 트럼프 관세에도 호황 (2026.06.25, Bloomberg) <p>트럼프 행정부의 재생에너지 정책 역풍에도 '25년 미국 신규 발전설비의 약 90%가 태양광·풍력·배터리 등으로 구성. 최근 Cypress Creek은 태양광·ESS 프로젝트에 \$3.5B를 조달하는 등 경제성과 자금 조달 여건은 우호적인 것으로 분석</p>
Government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● 중국, 재생에너지 소비 의무화 규정 발표 (2026.06.24, PV Tech) <p>중국 정부는 재생에너지 최소 소비 비중을 규정한 제42호 명령을 발표. 8월 1일부터 기존 자발적 인센티브 방식→전 부문 의무 평가 체계로 전환. 태양광·ESS·그린수소 등 산업 전반의 수요 확대로 정책 수혜가 예상됨</p>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● EU 회원국, SFDR 개정안에서 화석연료 기업 배제 조항 삭제 제안 (2026.06.24, ESG Today) <p>EU 회원국들은 지속가능금융공시규정(SFDR) 개정안에서 화석연료 신규사업확대 기업을 '전환(Transition)' 투자 카테고리에서 배제하는 방안을 삭제 제안. 이를 녹색 자본적지출 확대와 Scope 1·2 감축전략 요건으로 대체하는 방안 제시</p>
Corporations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● AMZN, BLK 산하 스카이본과 독일 최대 해상풍력 PPA 체결 (2026.06.22, ESG News) <p>아마존은 블랙록 산하 스카이본 리뉴어블스와 600MW 규모의 독일 역대 최대 단일 전력구매계약(PPA)을 체결. 이번 계약은 976.5MW 규모의 게나커 해상풍력 단지를 지원하며, '30년 해상풍력 30GW를 목표하는 독일 정책을 뒷받침</p>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● WMT, CEG와 첫 176MW 규모 장기 원자력 PPA 체결 (2026.06.24, ESG Today) <p>월마트는 콘스텔레이션에너지와 일리노이주 드레스덴 원전의 약 176MW 무탄소 전력에 대해 '29-'30년 개시되는 장기(각 15년) PPA 2건을 체결. 미국 주요 소매업체와 원전 간 최초 사례 중 하나로 주목되며, 월마트의 탈탄소 전략의 일환</p>
Funds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● 캐나다 CPPIB, 화석연료 기업 이사 선임 논란 (2026.06.22, DeSmog) <p>캐나다 연기금 CPPIB가 화석연료 기업의 이사를 선임 이사로 선임하자 거버넌스 논란이 불거짐. CPPIB는 6월 1일 캐나다내추럴리소시스(CNRL)의 이사를 선임 이사로 선임. CPPIB가 CNRL에 약 \$2.3B CAD를 포함해 석유·가스 기업에 수십억 달러를 투자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사회의 4분의 1이 캐나다 화석연료 부문과 직접적 연관을 갖게 됨에 논란 가중</p>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● 미국 NJ Pension, ICE 협력사 지오그룹 매각, PLTR는 유지 (2026.06.22, NJ Spotlight News) <p>미국 연기금 NJ Pension은 이민단속당국(ICE) 협력사 지오그룹 회사채를 매각했으나 팔란티어 지분은 투자 철회 압박에도 유지 중. 한편 지오그룹 회사채 매각은 인권 논란이 아닌 재무적 판단에 기인한 것이며, 주 재무관은 수탁자 책임과 '18년 ESG 정책이 특정 기업의 투자 철회를 강제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힘</p>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● 덴마크 Sampension, 미국 화석연료 보유 지분 축소 (2026.06.24, AMWATCH) <p>덴마크 연기금 Sampension은 미국 화석연료 보유 지분을 축소. 9개의 업스트림 석유 및 가스 기업을 포트폴리오에서 편출했으며, 7개의 유럽 기업에만 투자를 유지하는 방식으로 화석연료 포트폴리오를 전면 개편. 또한 남은 투자 기업들을 대상으로 기후 행동을 압박하는 과정에서 인내심이 한계에 다다랐다고 경고하기도</p>

자료: 언론보도, LS 증권 리서치센터

Compliance Notice

- 본 자료에 기재된 내용들은 작성자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(작성자: 투자전략팀).
- 본 자료는 고객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제작되었습니다.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본부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한 것이나,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유가증권 투자 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. 따라서 본 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.
- 본 자료는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당사의 동의 없이 복제, 배포, 전송, 변형될 수 없습니다.
- _ 동 자료는 제공시점 현재 기관투자가 또는 제 3 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.
 - _ 동 자료의 추천종목은 전일 기준 현재당사에서 1%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.
 - _ 동 자료의 추천종목은 전일 기준 현재 당사의 조사분석 담당자 및 그 배우자 등 관련자가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.
 - _ 동 자료의 추천종목에 해당하는 회사는 당사와 계열회사 관계에 있지 않습니다.